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406장 ..... 다같이

1. 곤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 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 능치 못한 것 주께 있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빌립보서 1:1-11 ..... 인도자

-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동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설 교** ..... “진정한 기쁨으로의 초대”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진정한 기쁨으로의 초대”

(빌립보서 1:1-11)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이다. 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가 사형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서신서보다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진정한 기쁨으로 초대한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것을 축복한다(1절).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수를 주인 삼은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3-5절).

예수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삶은 절대로 복음과 떨어진 삶이 될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우리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교회와 성도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며 그 기쁨을 통해 세상은 변화된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6-8절).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사랑을 받은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썼고, 그들 안에 가득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갔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또 한 가지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다(9-11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과 지식을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길’ 간절히 축복한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더욱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한다.